1. 크기가 26인 알파벳을 저장하는 배열 선언 후 단어를 입력 받아 해당 단어에 각 알파벳이 몇 개 들어있는지 출력하라.

문자열 처리 메서드 중 ToUpper() 또는 ToLower()을 사용하여라.

Hint : 대문자 A의 아스키 코드 : 65, 소문자 a의 아스키 코드 : 97

아스키코드를 활용하여 알파벳이 배열의 몇 번째 인덱스에 해당하는지 생각하여 알파벳 count.

|  |
| --- |
| 예) 단어를 입력하세요(대소문자 상관없음) : HelloWorld  d : 1개  e : 1개  h : 1개  l : 3개  o : 2개  r : 1개  w : 1개 |

2. 단어를 입력 받아 공백을 제거해보자. 문자열 처리 메서드 중 indexOf 와 Substring 함수를 사용하여라.

|  |
| --- |
| 단어를 입력하세요 : Hello. I am a student.  Hello.Iamastudent. |

3. input.txt 로부터 긴 문장을 입력 받아 찾고자 하는 문자가 몇 번이나 등장하는지 확인하고, 특정 단어를 다른 단어로 변경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보자. 텍스트 입출력을 이용한다.

3.1 input.txt 를 파일 입출력을 통해 열고, 문장 전체를 String textValue 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라.

3.2 문장을 어절 단위로 변환한다. Split 함수를 이용하여 구분한다. 구분자는 ' ', ',' 이다.

(우리 대한 -> SArray[0] = 우리, SArray[1] = 대한...)

3.3 어절에서 ‘학생’, ‘공부’, ‘부탁’, ‘대한’ 단어가 몇번이나 등장하는지 출력하라. IndexOf 함수를 이용한다.

3.4 학생을 학우로 변경하고, 전체 문장을 출력하라. String.Replace 함수를 이용한다.

3.5 output.txt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에 변경된 전체 문장을 저장하라.

|  |
| --- |
| 텍스트 파일로부터 이승만 연설문 읽어옴…  단어 등장 횟수 –  학생 : 11번, 공부 : 3번, 부탁 : 3번, 대한 : 5번 |

**Input.txt**

우리 대한 전국 학생 제군! 내가 지금 간단이 학생들에게 몇 마디 말을 하려 하니 잊지 말고 그대로 행하여 주기를 바란다. 학생의 신분으로는 공부하는 것이 의무요 또한 직책이니 다른 것은 다 상관 말고 공부만 잘 해서 모든 것을 배워 일후에 민족국가를 위하여 산 일꾼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. 그러나 이것은 세상이 태평하고 나라가 태안할 때에 할 말이오. 이러한 때를 맞아서는 학생도 영예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학생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지닌바 대한 학생의 사명을 완수해 주기를 진심으로 부탁하는 바이다.

이같이 학생들에게 거듭 부탁을 하게 됨은 공부하는 것으로만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형편이니 러시아사람들이 공산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세계에 선전해서 그 주의를 박수하는 나라는 다 잘 될 수 있으며 그 나라 사람들은 일도 아니하고 편안히 지낼 수 있다 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여다가 자기 나라에 붙여서 세계를 다 자기의 관활 밑에 두자는 것이다. 이 선전이 가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러시아를 저의 조국이라 하며 실상 저의 조국은 없이 해서 남의 나라에 붙이며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저의 원수로 알고 견딜 수 없게 만들려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목적이니 이 공산당이라는 것이 이 세상 모든 나라에 틈틈이 들어가서 집에 불을 놓고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파괴하는 것으로 일을 삼으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는 이 사람들 때문에 평정한 곳이 없게 되는 터이다.

소위 해방 이후로 이 공산당 선동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선전과 모략과 테로를 시작한 결과로 처음은 이것이 참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하는 주의로 알고 거의 다 쏠려 들어갔다가 그 속을 알고 난 후에는 도라서서 지금은 거의 다 애국애족(愛國愛族)하는 민족진영으로 우리와 함께 독립을 위하여 싸워온 것이니 우리끼리 잘 하면 다 무사히 만들 수 있을 것인데 러시아사람들이 우리나라 반을 점영(占領)하고 강제로 공산당을 확장시키며 선동자들을 이남에 보내어 한편으로는 거짓말로 선전하여 무식한 사람들을 꾀여서 소련(蘇聯)의 속국을 만들려　하며 또 한편으로는 살인, 방화와 모든 야만행동을 감행하여 사람이 못할 일을 다하고 있으니 공도는 그냥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위험한 형편이 없어질 것을 확언한다.

그 중에도 특히 학교 학생들을 백 가지로 꾀어서 선생이나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다만 공산당 선동자들의 말만 들어서 남녀 어린 학생들이 속으로 합작하여 살인, 방화하는 야만의 행동을 조장하고 있으니 과연 방화하는 것이 민족을 위하여 얼마만한 도움이 될 수 있는가? 우리 애국하는 학생들이 정신 차려서 이런 속이는 말을 믿지 말고 이런 선동자들이 있으면 민주경찰이나 우리 법관에게 전하여 이런 야만의 행위가 다시는 없도록 만들 것이오. 오직 우리 손으로 이루어진 이 나라만을 보호해서 영영 우리 조국으로 만들어야 할 결심으로 쉬지 말고 싸워서 4천 여년 내 선조가 물려준 우리의 금수강산을 유린하는 자 없게 할 것이며 영원 무궁히 대한사람 대한으로 영원한 복리를 누리기를 결심하고 맹서하리니 우리 전국 학생들은 이것을 영구이 잊지 말고 직혀 행하기를 부탁하는 바이다.

(金珖燮 편, 『이대통령훈화록』, 중앙문화협회, 1950)